

# 地理學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朴 杉 沃  
(서울大 地理學科)

##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地理學者를 양성하기 위하여 地理學科가 창설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地理教育科는 1946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으나, 순수한 지리학 전공교육을 위한 지리학과의 창설은 1958년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지리학과의 창설이 다른 학문의 학과나 지리교육과에 비하여 상당히 지연된 것은 日帝下에서 地理學의 교육을 소홀히 한 점, 해방 이후 고등교육 결정자의 지리학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지리학 교수 인력이 충분치 못한 점, 그리고 광복 후에 증등 교사 양성이 고등교육계에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된 점 등의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지리학과의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지리학과는 지리학 전문인력의 양성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교육과정 운영에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8개의 대학에 지리학과가 설립되어 있으며, 이 중 7개 학과에서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리학과들은 학부과정에서는 대체로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대학원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리학과의 교육과정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

고, 앞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고 지리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지리학과 운영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2. 教育의 特性

地理學은 지표공간의 조직과 구조패턴 및 그 변화를 설명하는 데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흔히 지리학을 공간과 장소에 관한 학문이라 한다. 특히 지리학자들은 장소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소의 변화패턴 및 그 과정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리학의 주제는 지구의 환경과 장소를 만드는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이다.

인간의 삶의 터전인 地域(region)은 지리학자의 연구대상이며 이 지역이 자연 및 인문현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바로 지리학의 二元的 특성을 말해 준다. 지리학을 크게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나누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원적 특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와 같은 이원적 특성은 지리학과 교육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이원적 특성 중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 지리학과 교육의 특성이 자연과학 중심이나, 인문사회과학 중심이냐로 결정될 수 있다.

지리학의 연구대상이 지역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바로 지리학의 실험실이나 마찬가지임을 말해 준다. 이 때문에 지역을 踏査하는 것은 지리학과 교육의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다. 우리 삶의 공간이 어떻게 조직되고 변화되는가를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지리학과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데 중요하다. 우리나라 모든 지리학과에서 매 학기 1회씩 정기답사를 실시하는 것은 바로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연구방법을 실제 체험케 하는 지리학 실습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학과의 연례행사로 실시하는 정기답사 이외에도 지역조사가 개별과목별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지역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답사가 더욱 중시되고 있는 경향이다.

지리학과 교육의 또다른 특성은 지역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큰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표공간의 인문 및 자연현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지도학이 발달되었다. 과거에 지도제작은 현지측량과 조사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으나 오늘날은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의 자료가 지도제작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인공위성사진 자료는 컴퓨터분석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컴퓨터를 활용한 지도제작이 최근에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공간상의 수많은 자연 및 인문현상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분석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이 지리학과 교육의 중요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 지리학 연구의 주요 방법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지도학, 컴퓨터지도학,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분야는 지리학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학문분야의 연구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지리학과에서 타학과를 위한 서비스과목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지리학과 교육의 특성은 바로 지리학의 학문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보다 혁신적인 연구방법론이 도입되는 등 큰 변

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 3. 教育課程의 現況과 問題點

#### 1) 現況

지표의 자연 및 인문현상을 지리학의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지리학은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대별된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지리학과와 교과과정 운영에서도 자연지리학 분야와 인문지리학 분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자연지리학 분야에서는 자연지리학개론 및 실습과목들과 기후학, 지형학, 토양 및 생물지리학 등이 대부분의 지리학과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환경보존론, 수문지리 등도 일부 학과에 개설되어 있다.

인문지리학 분야에서는 인문지리학개론 및 실습과목들과 경제지리학, 도시지리학, 문화지리학, 인구지리학, 정치지리학 등이 거의 모든 지리학과와 학부과정에 개설되어 있다. 이외에 촌락지리학, 역사지리학, 교통지리학, 사회지리학, 지역개발론, 산업입지론 등이 대부분의 지리학과에 개설되어 있다.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공통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지리학사, 지도학 및 실습, 계량분석법 등이 대부분의 지리학과에 개설되어 있고, 항공사진 판독 및 실습, 지리정보론 등의 과목도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리학은 계통지리학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이 자연지리학 및 인문지리학으로 대별하여 교육할 수 있지만,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地域研究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지역연구 분야에서 우리 민족이 몸담아 생활해 온 국토연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리학과에 한국지리가 개설되어 있다. 이외에 아메리카지리, 아시아지리, 유럽지리, 수도권 지역연구, 개발도상국 지역연구 등의 과목들이 지역연구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지금까지 비교적 상당수의 지리학과 학부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개설하는 교과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나 이외에 각 대학 지리학과와 특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지리학과가 理科大學에 속해 있는 건국대의 경우는 암석광물 및 실험, 해양학 및 실험, 지질학 및 실험 등 자연과학 분야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고 있으며, 文理科大學의 理學部에 속하는 경희대의 경우도 자연지리 분야를 타대학에 비해 큰 비중으로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 지리학과와 교육과정 운영의 차이는 학부보다는 대학원 과정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지리학과 대학원 과정에서는 대체로 학부에서 개설한 개론과목들을 보다 깊이있게 다루기 위하여 연습 및 연구의 형태로 다루는 교과목군과 학부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과목을 새로 개설하는 교과목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습 또는 연구의 형태로 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지도학, 경제지리, 도시지리, 사회지리, 교통지리, 정치지리, 문화지리, 역사지리 등은 바로 첫번째 교과목군에 해당되고 기후지형학, 하천지형학, 소기후학, 지역계획론, 환경체계론 등은 두번째 교과목군에 해당한다.

서울대 지리학과 대학원의 경우 42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경북대 지리학과 대학원의 경우 66개 과목으로 교과목이 상당히 세분되어 있다

(〈표 1〉 참조). 또한 건국대 지리학과 대학원의 경우는 수문환경, 대기환경, 지역과학의 3개 전공분야에 각각 35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총 105개 교과목이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다. 지역과학 전공의 경우 그 개설과목이 타대학 지리학과 대학원의 인문지리분야 개설과목과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수문환경 및 대기환경 전공의 경우는 수문지리와 기후학 분야만 각각 35개 교과목을 개설하였기 때문에 매우 세분된 교과목명이 나타나고 있다.

지리학과 대학원의 교과목 운영이 대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리학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토이해의 필요성과 국제화 추세가 부각됨에 따라 과거에 교과목은 개설되었으나 소홀히 취급했던 지역연구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각 대학의 지지과목은 과거에 별로 인기없는 과목으로 소홀히 다루어졌음이 사실이나 최근 들어서 지역연구 과목의 세분화 및 내용보완 작업들이 각 지리학과에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지리학과에서 일찍부터 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개설하였던 환경분야 교과목이 최근

〈표 1〉 지리학과 설립시기 및 교육과목 개설수

구분	대학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상명여대	성신여대	전남대
설립 년도	학부	1965	1962	1958	1990	1958	1983	1981	1981
	석사과정	1970	1957	1963	—	1951	1979	1977	1980
	박사과정	1984	1980	1966	—	1976	—	1985	1982
	비고	• 1957~1964 지리역사과 • 1979 지리교육학 석사과정 설립		• 1972 지리교육학 석사과정 설립			• 1973~1982 지리교육과	• 1972~1980 지리교육과 • 1984 지리교육학 석사과정 설립	
개설 과목수	학부	30	30	30	34	32	26	33	31
	석사과정		33		—	18	49	22	
	석·박공통	115*		21	—	6	—	8	38
	박사과정 대학원계	115*	33 66	17 38	—	18 42	— 49	20 50	38 38

\* 건국대 대학원의 경우는 전공이 수문환경, 대기환경, 지역과학의 셋으로 나뉘어 있다. 각 전공별로 35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세 전공 공통으로 10개 과목이 더 개설되어 있다.

들어 교육내용의 충실화는 물론 새로운 과목 개설을 추진하는 경향이다. 이는 최근 들어서 환경문제가 범세계적으로 쟁점화된 추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간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컴퓨터 보급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지리정보를 체계화하여 분석하는 지리정보시스템의 교육과정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의 여러 기법들은 지역의 자연 및 인문 현상에 관한 많은 양의 자료 수집·정리·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기 때문에 지리학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며 이에 따라 지리정보시스템(GIS) 과목의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대 지리학과에서는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서 GIS 과목을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대에서는 학부에, 건국대에서는 대학원에 각각 GIS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 2) 問題點

우리나라 지리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이 자연과학적 특성과 인문사회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교과과정 운영에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느냐이다. 지리학과가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될 경우, 자연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지리학분야 교과목의 실험·실습을 행하는 데 실험시설 및 재원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理學部에 속할 경우 인문지리학분야에서는 관련문학과의 유대강화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지리학의 綜合科學的 性格에서 비롯되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부 대학에서는 '지리학부'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둘째, 우리가 살고 있는 地域은 바로 지리학의 실험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히 야외조사나 실습이 각 교과목에서 중요하지만 이를 교과목 운영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역답사의 경우 학기중에 장기간 행하던 타교과목 수강생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방학중에 행할 경우 이를 학점에 반영하는 문제와 경비조달 문제가 어려운 과제이다. 특히 지리학과가 사회과학대에 속한 경우, 실습 및 지역답사를 위한 경비조달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셋째, 지리학의 연구방법론에 해당하는 컴퓨터지도학, 원격탐사, 지리정보시스템 등의 과목들은 최근 들어 지리학과 내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학문분야에서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 교과목들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실험 기자재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또한 중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수많은 국토정보의 처리·분석, 도시계획, 국토계획은 물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의 정리·분석에 지리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연시되고 있으나 아직 지리학과에서 이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컴퓨터지도학, 지리정보시스템은 앞으로 급속히 발전할 것이며 또 이들 분야가 지리학 이외의 타학문분야에서도 서비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교과목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없는 현실은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지리학과에서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또 대학원에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교수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또한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교수인력이 확보만 될 수 있다면 사회각계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교과목을 개설하고 선진국의 예에서처럼 교과목을 세분하여 심도있게 강의할 수 있겠으며, 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의운영이 어려운 과목들을 세분하여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서울대의 경우 전임교수가 강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42개 과목이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으나, 일부 지리학과 대학원 개설과목은 60~100여 개에 이르는 곳도 있어서 이들을 실제 운영하는데

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것으로 본다.

#### 4. 學科運營의 課題와 改善方向

현재 우리나라 지리학과가 당면한 과제는 앞에서 지적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즉,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과 관련되는 문제, 이를테면 지리정보시스템, 컴퓨터지도학, 자연지리분야의 실험·실습 과목 등의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야외조사 및 지역답사를 효과적이고 깊이있게 행할 수 있는 실습재원의 조달 등은 당면과제에 해당된다. 또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토록 세계 각 지역의 지역연구 과목을 체계적으로 개설·운영하며,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리학과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리학의 학문성격상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 강의를 모두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사회과학대학에 속해 있던 지리학과 운영은 이공계에 준하는 실험·실습 시설과 실험·실습비 배정을 원칙으로 해야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수인력 부족의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지리학과 8개 중 7개 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 학과에서는 박사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 3개 지리학과의 경우는 지리학 석·박사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지리교육학 석사과정도 운영하고 있다(앞의 <표 1> 참조). 이와 같이 대부분의 지리학과에서 대학원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각 대학의 지리학과 교수수는 서울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5명 이하이다.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 강좌를 강사에 의존하든가, 아니면 개설된 교과과정이 실제로는 거의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준다. 지리학이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으로 대별되

고 타학문분야에 서비스하는 과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학과에 비해 교수인력이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셋째, 지리학과에서 지역경제개발, 지역 및 도시계획, 환경관련분야 등에 전문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기관 등에 지리학 전공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앞으로 지방자치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각 지방에서 지역 및 도시계획, 지역경제문제 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들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학적인 배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지리학과에서는 이들 분야에 전문인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및 도시계획, 지역경제개발, 환경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재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리학과가 당면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리학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일부 대학에서 이미 지리학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학부제 운영은 결국 지리학이 자연과학적 성격과 사회과학적 성격의 이중성에서 비롯되는 학과운영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에서 밝힌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리학의 방법론으로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및 컴퓨터지도학분야는 타학문분야에 서비스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 분야 전문인력의 사회적 수요도 많기 때문에 學部制 運營을 통해서 이들 교과목의 운영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학부제 운영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으나, 인간이 몸담아 살고 있는 지역환경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지리학부제의 효과적인 운영은 신중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